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특성

김선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ringe in Modern Fashion

Sun Young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how Fringe, which is in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modern fashion, has been changed and what characteristics it is expressed to have in fashion on the basis of its formative property expressed in modern fashion.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Fringe, this paper analyzed a total of 346 Fringe of every type that were generally found in the world's four biggest collections, from 2006S/S to 2011S/S. This paper found some methods Fringe is made, which are: using a snagged fabric or knit as it is; intentionally snagging or tearing a fabric to make the effect of being snagged; knotting the tail or the edge of clothes, and then, macramé; and cutting leather or suede, which can't be snagged easily, and making Fringe strands. Fringe strands which are made in the above ways are made into a band and then, attached, or Fringe strands, a feathers, a comb, or beads are attached one by one. Or a tassel is independently or consecutively applied to clothes or ornaments, which are expressed in the form of fringes. Threads, strings, leather, suede, metals, plastics, raffia, horsehair, paper, beads, pearls, crystals, or felt were used for rich texture or unique visual effects. Colors of various brightness and chromas were used in consideration of materials. Through the effects of sameness, similarity, contrast, harmony and gradation with colors of clothes, emphasis or unified harmony was expressed.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Fringe, which were found in the modern fashion through those formative characteristics, were organic rhythmical beauty, handicraft decorative beauty, and folksy natural beauty.

Key words: fringe, organic rhythmical beauty, handicraft decorative beauty, folksy natural beauty

1. 서 론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실루엣, 소재, 색상과 함께 장식적인 디테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화되며,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의 표현문화로서 조형적인 아름다움의 추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예술 뿐만 아니라 패션에서 나타나는 표현영역의 확대 및 자유로운 표현기법은 고정적인 디자인의 개념을 벗어나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예술성과 실험정신으로 그 미적 가치를 부각시키기도 한다. 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성화와 차별화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 현대패션은 형태나 소재, 색상 등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의 조화로운 표현을 넘어서 다양한 장식적인 기법들로 변화를 주며 보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식기법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예술적 장식기법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였고, 패션디자인

에 있어 주름이나 패치워크, 자수, 레이스, 술 장식 등 각종 기법들은 디자인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부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중 술 장식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장식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복식의 일부분으로서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리듬감과 율동미를 나타내면서 미적가치를 표현화시키고 그 표현방법에 따라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한다. 술 장식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되어 하나의 선이나 면으로, 또 더 나아가 공간을 구성하며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전체적인 스타일을 결정하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술 장식에 관한 선행연구(김은영, 2001; 박지연, 2004)는 술 장식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만으로 작품제작을 위한 하나의 기법이나 수공예기법에 관한 연구에 있어 단편적으로 언급될 뿐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 유형이나 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술 장식의 변천과정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조형성을 근거로 현대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술 장식이 패션에 있어 어떠한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패션에 있어 보다 독창적인

Corresponding author; Sun Young Kim
Tel. +82-61-750-3685, Fax. +82-61-750-3680
E-mail: ksy6341@sunchon.ac.kr

표현의 장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술 장식의 개념과 종류, 변천과정 등을 문헌 고찰하였고, 술 장식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06S/부터 2011S/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술 장식 중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술 장식, 즉 프린지와 태슬을 모두를 포함하여 총 346점을 분석하였다. 사진자료는 인터넷 컬렉션 사이트인 스타일닷컴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동일디자인의 경우 GAP press, Mode&Mode, Fashion news 등의 컬렉션 지를 참고로 하였다.

2. 술 장식에 관한 일반적 고찰

2.1. 술 장식의 개념 및 종류

술 또는 술 장식은 천의 울을 뽑아 몇 올씩 묶어준 것, 또는 가죽에 가위집을 넣어 만든 것으로 영어에서의 프린지(Fringe)와 일맥상통한다(김창준, 1995).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태슬(Tassel)이 있으며, 방울장식을 의미하는 터프트(Tuft)가 있으나 형태나 용도 면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심선영, 2007).

프린지는 의복의 밑단이나 구성선, 스카프의 가장자리에 이용되는 술 장식으로서 주로 가장자리나 구성 라인을 따라 나열하듯이 술 울을 늘어뜨리는 것을 의미하며, 태슬은 여러 가닥의 실 또는 끈을 하나로 모아 장식다발을 이름으로써 독자적으로 사용되는 술의 형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태슬의 형태는 우리나라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나 주머니에 달려있는 술 장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전통 매듭에 있어 술 장식의 종류는 그 제작 기법에 따라 딸기술, 봉술, 방망이술, 방울술, 낙지발술, 금전지술, 잔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박지연, 2004). 프린지를 형성하는 방법은 직물의 구성선에 울이 풀려있는 그대로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직조된 직물의 울을 고의로 풀어 늘어뜨리는 방법, 실 또는 끈을 사용하여 매듭 후 늘어뜨리는 방법, 울이 풀리지 않는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은 원단을 절단하여 만드는 방법, 실이나 깃털, 비즈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길게 매달아 늘어뜨리는 방법, 또 각기 형성된 술을 띠 형태로 제작하여 의복 또는 장신구에 부착하는 방법 등이다.

이러한 술 장식은 현대패션에 있어 표현기법에 따르는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이나 직물, 가죽, 금속,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와 색상에 있어서의 유사, 대비조화 등을 통해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장식적 요소라 할 수 있다.

2.2. 술 장식의 변천

술 장식은 고대 인간의 의복생활에 있어 신체보호 및 장식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물의 줄기나 나무껍질, 짐승의 가죽 등을 이용하여 묶거나 매고, 또 늘어뜨리는 등 실용적이거나 미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시작되었고(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이후 직조의 발견과 함께 그 끝부분을

풀어헤친 형태인 술 장식으로 전개되었다 총할 수 있다. 나무 기능적이 충실용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장식을 위한 인간의 미적 기본 욕구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술 장식은 문화와 시대를 막론하고 복식사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확인된다. 투탕카멘 왕가의 분묘에서 발굴된 가구나 그림 중 고대 이집트의 제 19대 왕조시대 세트 1세의 모습에서 칼라시리즈나 하이크의 옆 술기 또는 가장자리에 술 장식이 이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전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식요소로 동방과의 접촉으로 의상의 가장자리에 단이나 술 장식을 한 것이며, 왕을 상징하기 위해 파뉴 위에 태슬이 달린 허리띠나 켈트트라는 앞 장식판을 같이 착용하기도 하였다(정홍숙, 1997). 즉 고대 이집트인들의 복식에서의 술 장식은 왕족을 중심으로 한 권위의 보편적인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의 남자복식에 있어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에 가장자리에는 긴 술로 장식을 하기도 하였으며,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의 남녀 기본복식인 튜닉과 솔에도 사용되었다(김은영, 2001). 특히 아시리아의 경우 술 장식이나 술이 달린 술은 공식적 의상의 정표가 되었고 술의 길이와 정도로 착용자의 지위를 나타냈다. 왕과 고관들은 술의 길이는 물론 술의 숫자, 폭과 배치 등으로 신분을 나타냈는데 그 디자인도 경위사로 술이 달린 것, 기하학적 무늬와 여러 색상으로 짠 것, 환상적이거나 종교적 의미의 자수를 놓은 것 등 다양하게 만들어 장식했다(정홍숙, 1997).

로마시대에 등장한 달마티카는 크리스천들이 입다가 AD3세기부터는 일반적으로 널리 입혀진 것으로 소매부리와 단에 술을 단 것도 있었다(신상옥, 1996). 그러나 직조기술과 바느질 방법의 발전과 기독교 사상의 전파로 인한 소박하고 절제된 분위기에 따라 술 장식은 점차로 의상에서 활용되기보다는 장신구로써 그 활용빈도와 범위가 제한되어 지면서 중세유럽에서는 여성들의 머리장식, 허리끈, 지갑의 밑단에 태슬을 다는 정도로 축소된 활용을 나타냈다(박지연, 2004).

그러나 르네상스시대에 이르러 비잔틴에서 유래한 호화로운 직물과 자수 장식, 보석 및 프린지나 태슬의 사용은 모자, 신발뿐만 아니라 장갑, 손수건, 가방 등의 장신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Wilcox, 1969). 러프칼라가 갖는 우아한 선과 규칙적으로 배열된 주름, 가장자리의 금은사로 장식된 태슬, 벌어진 스커트 가장자리에 프린지를 내려뜨리는 등 술 장식은 르네상스시대 복식의 장식적인 효과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활용되었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의상에 보석과 자수를 중점적으로 사용하는데 비해 바로크시대에는 태슬과 루프, 자수, 레이스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바로크의 독특한 취향을 나타냈다(정홍숙, 1997). 남성들이 착용했던 바지는 호박모양의 풍성한 실루엣으로 허리둘레와 도련의 양옆에 화려한 색의 루프다발 모양의 장식으로서 술 장식처럼 활용하였으며, 여성복식에서는 버슬스타일의 등장으로 스커트 앞자락을 옆이나 뒤로 묶기 때문에 앞에는 보이는 페티코트는 중요한 강조점이 되므로 태슬이나 프린지, 브레이드, 리본 등으로 층층이 장식하기도 하였다(정홍숙, 1997). 또

남녀가 착용했던 손목길이의 장갑은 중요한 장식품 중 하나로 대개 부드러운 가죽에 지수, 레이스, 프린지, 리본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으며, 남성들은 긴 칼이나 지팡이의 손잡이에 태슬을 매달고 다니기도 하였다.

로코코시대 여성복식인 로브 아라 폴로네즈의 언더스커트의 가장자리에 일정간격으로 드레이프 시켜 프린지나 리본 등을 달았고, 오버스커트의 자락을 고정시키는 목적으로 태슬이나 프릴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남자 장신구로서 장식적 목적으로 착용하였던 모자, 장식 띠, 지팡이의 손잡이에도 프린지나 태슬을 달아 장식하였다(Wilcox, 1969). 이후 신고전주의 시대 여성복에 있어 하이웨이스트의 허리선에 태슬이 달린 코드로 여미기도 하였고, 벨벳으로 만든 스펜서의 가장자리나 술의 가장자리에 프린지 장식이 되어 있거나 르네상스의 여밈에 작은 태슬 장식이 이용되기도 하였다(김은영, 2001).

이와 같이 술 장식은 고대에는 장식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화려함을 위한 장식적인 요소로 활용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의복의 형태 역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었고 술 장식 역시 신분이나 권위의 상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장식적 수단의 하나로 수공예적인 기법을 강조한 디자인이나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디자인, 민속적 이미지의 디자인을 위한 표현기법의 하나로 활용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조형성

술 장식은 다양한 형태는 물론 소재와 색채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며 기법과 활용범위에 따라 자연스러움과 과장됨을 개성적으로 표현하여 독특한 시각효과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의 고찰을 위해 2006S/S부터 2011S/S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 중 술 장식을 활용한 작품 총 346점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1. 형태

술 장식은 그 형태에 따라 프린지와 태슬로 나뉘지만, 시각적 효과와 조형적 특성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며 각기 독자적으로 사용되거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 형태는 올 풀기, 마크라메, 절단, 부착, 태슬로 구분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된 술 올들을 부착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활용방법은 상의나 하의, 또는 의복 전면에 걸쳐 긴 술 올들을 내려뜨리거나 층층이 반복 배열 및 중첩시킴으로써 의복의 형태를 구성하거나 하나의 면으로 활용된 경우, 술 올들을 의복의 가장자리나 밑단 등 일부면에 활용하여 직선, 곡선, 파상선 등 라인을 강조한 경우, 그리고 하나의 태슬이 단독으로 사용됨으로써 강조점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활용한 순으로 나타났다.

3.1.1. 올 풀기

프린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직물의 올을 고의로 풀어 만들거나, 직조된 직물의 올이 풀어진 상태 그대로를 이용한 것이다. Fig. 1은 두 가지 색상으로 이루어진 트위드 소재에 위사의 실을 풀어내 마치 커팅 된 다른 소재로 프린지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올 풀림이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재킷과 스커트, 소매 밑단, 그리고 포켓의 가장자리 등에 장식하여 하나의 장식 선으로 나타냄으로써 단조로움을 배제한 디자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데님 소재에 올을 고의로 풀어 헤침으로써 해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Fig. 2와 같이 니트 소재 의상에 있어서도 마치 낡아 헤어진 것처럼 실을 정리하지 않고 풀어 헤쳐 그런지 스타일의 해체적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Fig. 3과 같이 자수된 원피스 표면 위에 자수된 실의 자락들을 그대로 풀어내려 화려한 장식적 이미지는 물론 울동적 리듬감까지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술 장식에 있어 올 풀기의 형태는 낡아서 헤어지거나 고의로 올을 풀어 놓은 형태, 그리고 자수와 접목시킨 술 장식의 표현을 통해 장식적이면서도 해체적인 이미지

Table 1.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조형적 분석

구분		빈도(%)	구분		빈도(%)
형태	올 풀기	16(4.6)	활용 방법	점	12(3.5)
	마크라메	52(15)		선	154(44.5)
	절단	34(9.8)		면	180(52)
	부착	226(65.3)	소재	실, 끈	182(52.6)
	태슬	18(5.2)		깃털	47(13.6)
색상	동일색	249(72)		직물	69(19.9)
	유사색	56(16.2)		금속, 플라스틱	13(3.7)
	대비색	28(8.1)		종이, 라피아, 밀짚, 말총	6(1.7)
	그려대이션	13(3.7)		구슬, 비즈, 진주, 크리스털	17(4.9)
			소재혼합		12(3.5)

Fig. 1. Hermes,
2010F/W
(www.style.com)

Fig. 2. Dsquared2,
2010F/W
(www.style.com)

Fig. 3. Jean Paul
Gaultier, 2008S/S
(www.style.com)

Fig. 4. Chanel,
2010S/S
(www.style.com)

Fig. 5. Leonard,
2009S/S
(www.style.com)

Fig. 6. Gucci,
2011S/S
(www.style.com)

로 표현되었다.

3.1.2. 마크라메

마크라메는 낚시 또는 타월을 뜻하는 터키어인 마크라마(makramah)에서 온 것으로, 맺은 끈, 장식 끈의 술을 뜻한다(박경자, 1977). 프린지 형태의 술 장식 중에는 인터레이싱 기법에 의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레이싱은 실, 로프, 끈 등을 이용한 매듭이나 엮음의 작업이며 이러한 작업들은 형태와 구조의 다양함을 제시할 수 있다. 다양한 엮음 기법 중 마크라메에 의해 나타나는 술 장식이 대표적으로, 이는 특별한 도구 없이 손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경사와 위사를 자유롭게 증감시켜서 형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데(김주현, 1981), 마크라메 기법을 이용한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마무리는 술로 표현된다.

이러한 기법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의복의 밑단이나 가장자리에 매듭 후 술을 내려뜨린 형태로 나타난다. Fig. 4는 끈을 벌집모양으로 서로 엮어 하나의 면을 형성 한 후 남은 끈들을 서로 매듭지은 후 내려뜨려 술 장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장식적이

면서도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5는 바탕이 되는 원피스 소재와 같은 저지소재를 가늘게 절단하여 매듭지은 후 긴 끈들을 그대로 내려뜨려 앞 몸판 전체에 배치함으로써 화려하면서도 율동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다. Fig. 6 역시 마크라메 기법을 활용한 술 장식으로 묶거나 엮는 마크라메의 기법을 활용하여 마치 레이스와 같은 이미지를 나타내며 원피스 아랫부분에는 몇 가닥의 실을 한데 모아서 매듭지은 후 남은 술들을 내려뜨린 형태로 수공예적인 장식적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적용되는 아이템 및 디자인, 소재의 특성에 따라 매듭을 지었을 때 나타나는 매듭의 모양, 크기, 부피 등으로 독특한 표현효과를 나타내며 매듭을 지은 후 내려뜨린 술은 술의 길이나 소재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더욱 강조시켰다.

3.1.3. 절단

직물의 울을 풀어서 사용하거나 실을 이용한 매듭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술 장식 이외에 또 다른 표현 형태는 울 풀

Fig. 7. Gareth Pugh,
2008S/S
(www.style.com)

Fig. 8. Hermes,
2009S/S
(www.style.com)

Fig. 9. Chanel,
2011S/S
(www.style.com)

Fig. 10. Versace,
2011S/S
(www.style.com)

Fig. 11. Jil Sander,
2009S/S
(www.style.com)

Fig. 12. Victor&Rolf,
2007S/S
(www.style.com)

림이 없는 가죽이나 스웨이드를 일정간격으로 가늘게 절단하여 늘어뜨린 것이다. 가죽이나 스웨이드 소재로 이루어진 의복의 밑단이나 가장자리를 일정간격으로 절단하여 술을 형성함으로써 울동적인 리듬감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일정간격으로 절단된 가죽의 띠들을 전체 면적에 배치하여 원피스나 스커트 등 하나의 의복 아이템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각기 잘려진 조각들 위에 비즈나 이일릿 장식들을 더해 새로운 재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Fig. 7은 가늘게 커팅 된 가죽소재로 원피스 전체는 물론 헤어장식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인체동작에 따라 흔들리는 프린지 장식을 이용한 것으로 가죽자체의 질감과 블랙이 주는 색감과 함께 전위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Fig. 8 역시 가죽과 같이 울이 풀리지 않는 스웨이드 소재를 커팅 하여 햄 라인을 장식한 랩 스커트로 카우보이모자와 함께 웨스턴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9는 동일한 소재의 겹으로 된 스커트에 허리선에는 세로방향으로, 앞과 옆 부분에는 가로방향으로 찢어진 것과 같은 슬래쉬 장식을 하였고, 또 햄 라인을 서로 다른 길이로 커팅 하여 독특한 표면감을 나타낸 것이다. 또 커팅 된 원단의 경우 직선의 형태가 아닌 지그재그선과 같이 모양을 주어 커팅 하거나 술과 조합하여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형태감과 함께 울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절단에 의한 술 장식은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이 울 풀림이 없는 소재들을 이용하였고, 다른 술 장식에 비해 그 제작과정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해 절단된 면의 폭과 길이, 형태를 달리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3.1.4. 부착

부착에 의한 술 장식은 울 풀기나, 절단에 의한 프린지, 또는 매듭을 지어 늘어뜨린 술 올들을 의복이나 장신구에 따로 부착한 경우, 또는 실올이나 깃털 하나하나를 의복의 표면 위에 부착하여 늘어뜨린 경우로 현대패션에서 나타나는 프린지의 형태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Fig. 10은 가닥가닥 잘려진 멀티컬러 프린트의 소재를 하나의 띠와 같은 형태로 상의 몸판에 층층이 부착시킨 것으로 화려한 컬러의 프린트 소재 원피스와 함께 리드미컬한 이미지는 물론 다양한 원색에 의한 토속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낸다. 특히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울 풀림이 없는 소재뿐만 아니라 실크 오간자, 니트, 저지 등의 소재를 울 풀림과 상관없이 커팅 하고 이를 층층이 부착하여 술 장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용된 소재 본래의 재질감 대신 독특한 표면감과 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커팅 된 원단은 층층이 배열하여 티어드 원피스나 스커트를 형성하기도 하기도 하고, 일부분에만 부착하여 시선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술 올이나 끈들을 그냥 내려뜨리지 않고 고리모양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여 부착시킴으로써 보다 풍성한 볼륨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 Fig. 11과 같이 술 올을 어깨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의복 전체에 걸쳐 내려뜨림으로써 연속적인 선의 흐름을 통해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는 물론 긴 길이의 술 장식으로써 인해 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울동적 리듬감을 강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Fig. 12와 같이 네크라라인에만 술을 부착하여 늘어뜨리고 벨트와 함께 연출함으로써 연속적인 선을 흐름을 차단시키고 벨트선 윗부분은 하나의 문양으로, 아랫부분은 장식적인 프린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며, Fig. 13과 같이 셔츠원피스의 양어깨와 위아래의 패치포켓 사이로 부착된 술 장식은 마치 긴 술을 두른 것과 같은 착시의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술 올이 부착된 긴 프린지인 경우 흘러내리는 술 올의 일정량을 묶거나 엮어서 매듭을 준 뒤 내려뜨려 마크라메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직선의 형태가 아닌 사선의 형태 또는 스켈랩 형태 등 다양한 라인을 형성하며 장식적인 이미지를 나타냈다. 술 올이나 끈 외에도 깃털을 이용해 프린지 장식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의복 전체에 촘촘히 깃털을 부착하여 거대한 볼륨감과 함께 동물적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Fig. 14와 같이 니트 소재의 스웨터 위에 부분적으로 타조 깃털을 부착하여 부조적인 효과와 함께 독특한 재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Fig. 13. House of Holland, 2011S/S
(www.style.com)

Fig. 14. Nina Ricci, 2007F/W
(www.style.com)

Fig. 15. Richard Nicoll, 2007F/W
(www.style.com)

Fig. 16. Yves Saint Laurent, 2008F/W
(www.style.com)

Fig. 17. Armani Prive, 2008F/W
(www.style.com)

Fig. 18. Ungaro, 2011S/S
(www.style.com)

이와 같이 따로 제작한 술을 부착하는 형태는 의복의 가장자리나 밑단 혹은 요크선과 같은 일부분에 사용되었던 제한점에서 벗어나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대로 술의 배치와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소재 및 색상의 믹스매치 등 표현영역을 보다 확대시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1.5. 태슬

태슬은 실을 하나로 모아 장식다발을 이루는 형태로 프린지와 마찬가지로 매달려 흔들린다는 시각적 특성에 있어서 동일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현대패션에 태슬의 형태는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의복에 부착되거나 장신구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5는 태슬을 이용한 목걸이로 하나의 강조점으로 이루어 시선을 유인하는 장식적 효과를 나타내며, 이러한 태슬의 형태는 목걸이뿐만 아니라 가방이나 모자, 벨트, 스카프, 숄 등 각종 패션 소품에 프린지와 함께 활용되어 민속적인 이미지나 히피적 감성을 나타냈다. 태슬의 소재 역시 실뿐만 아니라 장식 끈, 커팅 된 원단, 깃털 등 다양한 소재로 구성되어 장식적인 효과를 강조하게 되는데, 의복에 활용된 경우 태슬 하나만으로 독립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태슬을 연속적으로 부착함으로써 프린지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강조점이나 선으로 표현되는 태슬을 Fig. 16과 같이 원피스 전면에 점점이 부착되어 문양과 같은 효과로 면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부조적인 재질감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3.2. 소재

소재는 술 장식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실이나 끈,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울이 풀리지 않는 직물이나 일반 직물류, 깃털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소재 외에도 금속, 플라스틱, 라피아 소재, 말총, 종이, 구슬이나 비즈, 진주, 크리스털, 부직포 등 다양한 소재와 이들을 혼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질감이 효과와 함께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과를 나타냈다.

작은 비즈를 연결하여 한 울의 실과 같이 만든 비즈 술들을 의복 전체에 한 올씩 부착하여 술 장식의 화려함을 더욱 강조하기도 하는데, Fig. 17은 진주를 연결한 술 장식으로 의복의 형태를 구성하기도 하고, Fig. 18과 같이 꽃문양으로 레이저 커팅 한 프린지 장식을 원피스 전면에 부착하고 각각의 단위 조각들을 밑단에 그대로 내려뜨림으로써 수공예적인 장식미의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Fig. 19와 같이 라피아 소재를 이용한 술 장식 드레스, Fig. 20과 같이 밀짚소재와 깃털을 활용한 술 장식 드레스, Fig. 21과 같이 원시가면의 형태를 나타낸 원피스에 색색의 끈을 이용한 술 장식들은 원시 토속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 역시 술 장식에 활용되는데 가늘게 커팅하거나 특정 형태로 커팅 된 판들을 이어 술 장식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2007F/W On aura tout vu는 플라스틱 스푼, 포크, 나이프 등을 의복 위에 매달아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는데, Fig. 22는 원피스 전면에 걸쳐 플라스틱 스푼을 매달아 술 장식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기성오브제를 등장시켜 극도의 물질적 이미지를 표현한 콜라주 기법의 하나인 레디메이드를 연상시키며 유희적인 이미지까지도 나타낸다. 또 지난 2009S/S Sonia Rykiel의 40주년 기념 컬렉션을 통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녀에 대한 헌정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 Fig. 23은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이 헌정한 작품으로 Sonia Rykiel의 얼굴과 헤어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담은 원피스이다. 가모를 이용한 프린지 장식의 헤어스타일은 하나의 장식적인 요소인 동시에 디자이너 특유의 위트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실의 사용에 있어서도 광택사나, 합사, 다양한 재질감의 털실 등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끈, 깃털, 비즈 등과 혼합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표면효과를 나타냈고, 직물에 있어서도 울림과 상관없이 다양한 소재를 커팅 하여 술 장식으로 활

Fig. 19. Franck Sorbier, 2007F/W (www.style.com)

Fig. 20. Alexander McQueen, 2011S/S (www.style.com)

Fig. 21. Franck Sorbier, 2010F/W (www.style.com)

Fig. 22. On aura tout vu, 2007F/W (www.style.com)

Fig. 23. Sonia Rykiel, 2009S/S (www.style.com)

Fig. 24. Balmain, 2008S/S (www.style.com)

용함으로써 독창적인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즉 술 장식에 활용된 소재는 길이나 표현형태, 그리고 의복의 아이템 등과 서로 조화되면서 원시 토속적 이미지, 에스닉 이미지, 우아한 여성적 이미지, 해체적 이미지 등 다양한 이미지 연출로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자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3.3. 색상

술 장식을 구성하는 술 자체의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의 무채색을 비롯하여 원색의 컬러에서부터 파스텔 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통해 풍부한 색감을 나타내며, 광택이나 광택 소재, 금속, 비즈, 구슬 등 반짝임을 나타내는 술 장식들 역시 화려한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게 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색상은 바탕이 되는 의복의 색과 동일색인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유사색상, 대비색상, 그라데이션 효과의 순으로 나타났다.

술 장식만으로 의복 전체에 걸쳐 표현됨으로써 하나의 의복 형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바탕이 되는 의상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며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Fig. 16과 같이 의복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인해 강렬한 대비효과를 나타낸 경우 시선을 집중시키는 유인자극으로 술 장식이 배치된 선이나 부분을 보다 강조시키는 효과를 갖게 한다. 또 Fig. 11과 같이 바탕이 되는 의복의 색과 동일한 술 장식, 또는 유사색상의 술 장식을 활용한 경우 연속성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동일, 유사색상의 조화는 단조로울 수도 있지만, 다양한 소재에서 오는 독특한 재질감과 술 장식 특유의 율동적 리듬감에 의해 단조롭다기보다 통일된 조화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ig. 24와 같이 각각의 술 올이나 커팅된 원단을 염색하거나, 유사색상의 술 올들을 배치함에 있어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내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한다. 또 Fig. 10과 같이 다양한 색상으로 프린트된 원단을 가늘게 커팅 하여 술 장식으로 활용한 경우 일루전 효과로 인해 단색의 술 장식보다 더 큰 율동적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4.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특성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은 그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과 함께 적용된 의복의 아이템과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독창적이면서도 창조적인 새로움을 갖게 한다. 술 장식의 조형성을 근거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술 장식을 분석한 결과 그 특성을 유기적 율동미, 수공예적인 장식미, 토속적 자연미로 구분하였다.

4.1. 유기적 율동미의 표현

움직임은 움직이는 일, 변동이나 변화를 뜻하며, 그 특성에 따라 환영적인 움직임과 실제의 움직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정지된 것이고, 후자는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윤난지, 1990). 즉 움직임

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환영을 통해 착시적인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작품 전체 또는 일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Yamaguchi, 1989/1995). 이러한 움직임의 표현은 화가들이 회화적 수단에 의해 그린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움직임이 개입된 예술, 즉 키네틱아트로 나타난 것 같고 같이 조형예술의 하나인 패션에서도 인체라는 유기적 공간 위에서 움직임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패션디자인에 있어 움직임은 인체의 동작에 의해 종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의복의 구성이나 디테일에 의한 의상 자체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통해 율동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게 된다. 움직임과 연관된 개념의 하나인 율동은 주기적인 운동,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방향의 원리이며(Davis, 1990/1990), 시각예술에 있어서의 율동이란 하나의 요소, 또는 여러 요소들의 질서 있고 규칙적인 흐름이다(Feldman, 1979/1982).

패션디자인에 있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술 장식은 확실적인 실루엣에서 탈피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형태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자유롭게 흔들리는 경쾌한 율동미를 나타냈다. 술 장식을 통해 디자인에 화려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복이나 장신구 등 적용된 부분에 따라 하나의 점, 선, 면, 나아가 공간으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분산시키는 등 하나의 자극적인 요소이자 강조적인 요소로 리드미컬한 생동감을 표현하였다. 비대칭적이거나 파상을 이루는 구성선,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선에서부터 불규칙한 선, 복잡한 선에 이르기까지 부착된 술들은 인체동작과 함께 활발히 움직이는 동적인 요소로 지각하게 되며 하나의 선이라는 개념을 넘어 다양한 시각효과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선으로 표현되는 술 올들에 의한 자유로운 방향성과 선 운동에 의한 속도감, 다양한 술 길이나 중첩 및 여러 가지 강약의 효과 등으로 술 장식은 리드미컬한 율동미를 부각시키게 된다. 하나의 선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복 아이템의 넓은 면적에 표현되거나 중첩에 의해 여러 층으로 표현되어 볼륨감을 나타낸 경우 또한 각각이 움직이는 술 올들에 의해 무겁다기보다 무게감 있는 율동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율동미는 직물 소재를 절단하여 프린지로 활용한 것 뿐만 아니라 실, 구슬, 비즈, 깃털, 말총,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각 소재가 나타내는 특성 자체만으로도 유기성을 지니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특히 광택 있는 실이나 끈, 비즈, 크리스털, 구슬 등 반짝이는 소재를 이용한 술 장식은 빛의 작용과 함께 강한 시각적 자극의 효과로 환상적인 환영의 이미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실제적인 율동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즉 술 장식을 통해 표현되는 유기적 율동미는 술 자체의 형태 및 소재의 특성과 함께 인체의 움직임, 더 나아가 공간으로 확장되는 등 상호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4.2. 수공예적인 장식미의 강조

장식이란 일반적으로 장식물이나 장신구, 또는 장식무늬 등을

말하며, 이름답게 꾸미는 것을 충칭한다. 장식 그 자체는 독자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형예술에서 표현적인 가치를 수반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의상이나 공예 등 디자인분야에 있어 기능적인 측면을 위하여 가치매개의 역할을 하는 부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윤민희, 2006). 특히 단순함을 특징으로 모던함이 주던 차가움과 냉정함과 같은 확일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보다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오늘날 다양한 수공예적인 기법을 통해 장식성을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술 장식은 인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인간의 장식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표현방법의 하나로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특유의 장식미를 나타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술 장식만으로 의복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술 장식은 바탕이 되는 의복과 조화를 이루며 작품 전체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또 인체라는 공간 위에서 입체적인 특성과 함께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통해 다채로운 장식적 효과를 갖게 한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기법은 단순한 울 풀기나 풀어진 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술 올들을 엮고 매어 내려뜨리는 마크라메 기법, 각종 직물을 커팅 하여 프린트 장식을 만드는 것, 다양한 기법에 의해 만들어진 술 올을 한 올 씩 부착하거나 띠로 만들어 부착한 것, 태슬의 형태를 이루는 것, 그리고 이러한 유형들의 혼합적인 표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수공예적인 장식미의 가치를 입증한다. 술 장식은 하나의 선으로서 리드미컬한 율동적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의복 전면에 활용되어 표면을 장식하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단순하거나 지루함을 배제시키기도 한다. 또 술 장식

을 나타내기 위한 소재 또한 형태나 색채와 연관되어 디자인의 완성시키는 중요한 조형요소라 할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실과 직물, 끈, 플라스틱, 금속, 종이, 깃털, 말총, 라피아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의 사용과 혼합을 통해 디자인에 장식성을 강조하게 하였다. 특히 직물이나 니트의 울을 고의로 풀어 헤쳐 술 장식을 형성하는 경우 낡고 헤진 이미지를 나타내 해체적 그런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현기법 역시 디자이너의 의도에 의해 나타나는 고도의 수공예적인 장식미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색상에 있어서의 유사조화나 대비조화,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에 이르기까지 의복의 색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표현 형태나 기법, 소재 등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한 독창적인 술 장식은 모던함이 주는 경직성이나 단조로운 실루엣에서 벗어나 소재 특유의 질감을 표현하면서 입체적이고 환상적인 장식적 이미지를 가중시키게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법들은 기계적 대량생산이 아닌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장식적인 가치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4.3. 토속적 자연미의 표출

자연미는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움의 근원을 구한 것으로, 복식의 조형에 있어서 미적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거나 자연으로부터의 모방 또는 자연과의 조화,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근원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나게 된다(금기숙, 1998). 이러한 자연미의 표현은 다원성과 다양성의 추구로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진 오늘날 서로 다른 문화의 고유성, 민속적 패턴과 장신구,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만남들을

Table 2.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조형성과 특성

구분	조형적 특성	표현특성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물이나 니트의 풀어진 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고의로 풀어 장식적이면서도 해체적 이미지 표현 · 각종 실이나 끈, 일정간격으로 절단된 직물을 서로 엮고 매듭지어 늘어뜨린 마크라메의 형태로 수공예적인 장식미를 표현 · 울 풀림이 없는 직물소재의 의복에 있어 가장자리나 밑단을 일정 간격으로 절단하여 율동적 이미지를 표현 · 울 풀림이 있는 직물 역시 절단하여 인위적인 커팅과 자연스러운 울 풀림의 유기적 조화미 표현 · 다양한 기법에 의해 형성된 술 올들을 하나씩 부착하거나 띠로 구성하여 하나의 선 또는 면이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율동미와 함께 부조적인 효과 및 입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냄 · 실뿐만 아니라 커팅 된 직물을 모아 장식다발을 이룬 태슬의 형태로 표현 	유기적 율동미
활용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인 태슬의 형태로 활용되어 시선을 집중시키는 강조점의 형태로 활용됨 · 연결된 술 올들을 의복이나 장신구의 가장자리, 밑단에 활용하거나, 의복 위의 일부분에 직선, 곡선, 파상선, 비대칭선 등 다양한 장식적인 선의 형태로 활용 · 각각의 술 올들을 촘촘히 부착하거나, 반복 또는 중첩에 의해 의복 아이템 전면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의복의 형태를 형성하거나 하나의 면으로 활용 	수공예적 장식미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실, 끈, 직물, 깃털뿐만 아니라 금속, 플라스틱, 구슬, 비즈, 진주, 크리스탈, 종이, 라피아, 밀짚, 말총 등 다양한 소재의 활용 및 소재의 혼합을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가 	
색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소재와 연관되어 다채로운 색상으로 표현됨 · 바탕이 되는 의복의 색과 동일하거나 유사색상을 사용하여 통일적 조화미 표현 · 의복의 색과 대비되는 술 장식으로 적용된 라인이나 부분을 강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냄 · 술 올 자체를 염색하여 그라데이션 시키거나, 색상배열에 있어 그라데이션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배치하여 장식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이미지 표현 	토속적 자연미

수용함으로써 일상적이고 토속적인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전통의 것을 새롭게 인식하여 자연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토속적 자연미로 나타나기도 한다(김은영, 2001).

현대패션에 있어 토속적 자연미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천연 자연물의 이용과 가공, 동물이나 조류의 이미지 활용, 원시적인 문양과 토속적인 장신구 및 주술적 상징물 활용, 다양한 민속 복식의 디테일 활용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술 장식은 프리미티브적인 이미지의 민속복식이나 자연에의 접근과 보다 심오한 실재에 대한 추구를 통해 자연회귀의 경향을 나타내는 히피스타일, 또는 웨스턴 스타일에 있어 특징적인 장식요소로, 구슬, 끈, 깃털 등을 이용하여 의상의 형태구성이나 디테일적인 장식적 요소, 장신구로 표현됨으로써 각 스타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토속적 자연미의 가치를 나타냈다.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옷이 풀리면서 만들어지는 원시적인 술의 형태는 자연스러움을 강조하게하며, 세련되고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으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특히 단순한 의복의 형태와 깃털이나 마른 식물의 줄기, 라피아 소재, 말총, 밀짚 등 자연적인 소재를 부착하거나 서로 엮고 꼬아 만든 술 장식, 그리고 다양한 동물적 모티브의 원단을 절단하여 만든 술 장식들은 원시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으로부터 얻어낸 재료의 사용에서 느낄 수 있는 토속적 자연미는 현대패션에서 하나의 모티브로 적용되어 무엇보다도 원시적 삶의 모습을 반영하며 강한 생명력과 함께 자연의 근원적 이미지를 연출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소재와 함께 강렬한 원색의 대비나 문명의 세례를 받지 못한 낡고 퇴색한 것 같은 색상, 또는 사막과 황토의 색 등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을 통해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출과 원시자연의 미를 나타냈다. 이러한 술 장식의 표현은 첨단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원시적 토속성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인간본성이 지닌 자연회귀라는 필연적인 요소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5. 결 론

단순한 옷 풀기에 의한 술 장식의 표현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표현기법과 소재, 색상의 조화 및 혼합적인 조합을 통해 의복 형태구성 및 가변적 실루엣을 형성하기도 하고 장식적인 표현을 위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술 장식의 변천과정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조형적 특성을 통해 현대패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술 장식의 표현특성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6S/S부터 2011S/S까지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등 세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태슬과 프린지를 모두 포함하여 술 장식을 나타낸 작품 346점을 분석한 결과 술 장식을 나타내는 표현 형태는 직물이나 니트의 풀어진 옷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고의로 풀어내거나 찢어 옷 풀림의 효과를 나타낸 것, 의복의 밑

단이나 가장자리에 매듭 후 술을 내려뜨린 마크라메, 가죽이나 스웨이드와 같이 옷 풀림이 없는 소재 및 다양한 소재를 절단하여 술 옷을 형성한 것, 이상의 방법을 통해 형성된 술 옷들을 하나의 띠로 만들어 부착하거나 술 옷, 깃털, 빛, 구슬 등을 한 올씩 부착한 형태, 그리고 태슬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장신구에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연속부착을 통해 프린지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소재는 실이나 끈, 그리고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옷이 풀리지 않는 소재가 일반적이나 금속, 플라스틱, 라피아 소재, 말총, 종이, 구슬이나 비즈, 진주, 크리스털, 부직포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함으로써 풍부한 질감의 효과와 함께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나타냈다. 색상 역시 소재와 관련되어 원색의 컬러에서부터 다양한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통해 풍부한 색감을 나타냈으며, 바탕이 되는 의복의 색상과 동일, 유사, 대비 조화 및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강조의 효과 및 통일된 조화미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술 장식의 표현특성은 유기적 울동미, 수공예적인 장식미, 토속적 자연미로 나타났다. 첫째,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술 장식은 획일적인 실루엣에서 탈피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형태미를 나타냄과 동시에 술 옷들에 의한 자유로운 방향성과 선 운동에 의한 속도감, 다양한 술 길이나 중첩 및 여러 가지 강약의 효과 등으로 유기적인 울동미의 특성을 나타냈다. 둘째, 표현 형태나 기법, 소재 등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한 독창적인 술 장식은 모던함이 주는 경직성이나 단조로운 실루엣에서 벗어나 소재 특유의 질감을 표현하면서 장식적 효과를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기계적 대량생산이 아닌 수공예적인 기법을 통해 장식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셋째, 자연스럽게 옷이 풀리면서 만들어지는 원시적인 술의 형태는 세련되고 정제되지 않은 투박함으로 자연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데, 깃털이나 마른 식물의 줄기, 라피아 소재, 말총, 밀짚 등 자연적인 소재를 부착하거나 서로 엮고 꼬아 만든 술 장식, 그리고 다양한 동물적 모티브의 원단을 절단하여 만든 술 장식들을 통해 토속적 자연미를 반영하였다.

오늘날 현대패션은 독창적인 조형미의 추구를 위해 다양한 조형디자인의 요소와 원리 및 장식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실험하는 하나의 장으로 예술적 표현의 영역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시각적인 자극을 추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술 장식은 패션디자인에 장식성을 강조시키는 하나의 중요 요소이자 리드미컬한 울동미로 획일적인 실루엣에서 탈피하여 보다 확장된 공간으로까지 변화되는 가변적 형태미로 디자인에 생동감과 활기를 부각시켰다. 또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민족적이거나 토속미를 느끼게 해주는 에스닉풍의 일환으로, 또는 직물의 옷을 하나하나 풀어헤침으로서 해체주의적인 경향과 함께 원시적이면서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술 장식이 지닌 표현의 효과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과 구별되어 자신만의 스타

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패션 감성에 부합되는 독창적 디자인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다양한 소재와 기법 및 연출의 변화를 통한 창의적인 시도들로 보다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7). *매듭장*. 서울: 국립문화재연구소.
- 금기숙. (1998).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 김은영. (2001). *술 장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1981). *웨스턴 스타일의 마크라메*. 서울: 한림출판사.
- 김창준. (1995). *복식대사전*. 서울: 도거출판 라사라.
- 박경자. (1977). *마크라메*. 서울: 한림출판사.
- 박지연. (2004). *경기용 라틴 아메리카 댄스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상옥. (1996). *서양복식사*. 서울: 수학사.
- 심선영. (2007).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장식적 표현기법의 경향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난지. (1990). *움직이는 미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민희. (2006). *문화의 키워드 디자인*. 서울: 예경.
- Feldman, E. B. (1982). *미술의 구조적 이해* (김춘일 역). 서울: 열화당. (원저 1979 출판)
- Davis, M. L. (1990).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 역). 서울: 경춘사. (원저 1990 출판)
- Wilcox, R. T. (1969).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Scribner paper fiction.
- Yamaguchi, G. (1995). *20세기 예술과 테크놀로지* (김승희 역). 서울: 지성의 샘. (원저 1989 출판)

(2011년 8월 8일 접수/ 2011년 8월 14일 1차 수정/
2011년 8월 14일 게재확정)